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에 전주 알린다

시, 미국·프랑스 등 6개국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한옥마을·남부시장 등 주요 관광명소 방문 문화탐방 전통예절·한지공예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주의 매력 알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러시아 등 6개국 현지 여행사 관계자 약 20명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들은 전주의 주요 관광명소를 탐방하

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구미주 지역 맞춤형 전주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추진되는 이번 팸투어는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을 즐기는 50~60대를 지칭하는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를 주요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팸투어 참가지역

과 대상 연령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팸투어가 진행됐다. 전주를 찾은 해외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은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전통문화연수원 등 전주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전주비빔밥 체험과 한지공예체험, 전통예절체험, 전통공연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현지에서 직접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현지 여행사 관계자가 방문하는 것이어서 구미주 지역 관광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관광객의 실질적인 전주 방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진 참가와 국내외 관광관계자 대상 팸투어 추진, 해외 수혜여행단 유치 등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전주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구미주 지역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함으로써 전주 관광의 대외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숲 밧줄 놀이' 운영

야호~ 이제 나도 '모험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조성한 '야호 아이숲'이 미래 주역인 아동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모험을 즐기는 자연친화적인 숲놀이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주시는 26일 서곡지구 꼬불꼬불도토리숲에서 '야호아이숲' 이용활성화를 위해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숲 밧줄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연탐사아카데미에서 주관했으며, 아동과 부모 등 약 200여명의 참가자를 오전·오후반으로 구분해 각각 2시간씩 진행됐다. 참여한 아동과 부모는 함께 매듭법 교육을 시작으로 짚라인 타기, 트리를 라이밍(나무오르기), 흔들다리 건너기 등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숲밧줄 놀이를 즐겼다. 숲밧줄놀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다루는 밧줄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매듭법을 배운 다음, 숲속

의 나무와 연결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보는 자연친화적인 숲놀이 활동이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박지인 학생(12세)은 "처음 접하는 여러 가지 밧줄 놀이가 모두 재미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짚라인이 가장 스티일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숲에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숲속 모험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친숙해 지고 모험심과 협동심이 향상되는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23일 천장산에 조성된 야호아이숲인 떼구루부 숲방울숲에서 2차 숲밧줄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063-904-3052)로 접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는 26일 서곡지구 꼬불꼬불도토리숲에서 '야호아이숲' 이용활성화를 위해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숲밧줄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전주시, '꽃심 전주' 독후감 대회 우수작 선정... 총 36편

전주시가 전주정신인 '꽃심'과 전주만의 인문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한 제2회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 수상자가 모두 결정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0일간 접수된 제2회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 출품작 132편에 대한 전주정신 전문가와 독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6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작 36편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7월 10일 진행할 예정으로,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4개 부문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함께 총 5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 각 부문별 수상자 대표는 전주시민의 날 전주정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게 된다. 한편, 수상자 명단은 전주시 홈페이지(www.ip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철 기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내실화

도교육청, 영어보조·해외영어봉사·중국어보조 등 교수능력 향상 위해 맞춤형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원어민 보조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자(TaLK), 풀브라이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등 총 270여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풀브라이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제외한 영어(EPIK, TaLK)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CPIK)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엄격한 선발 과정과 연수를 거쳐 채용이 되며 6개월에서 1년의 계약기간동안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수업 및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6~11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TaLK와 CPIK 원어민 보조교사와 달리 도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는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실기능력평가, 복무태도, 교육활동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1차 평가(학교, 기관평가)와 2차 도교육청 평가를 거쳐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당해년도 수요와 예산에 맞추어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엄격한 재

약평가 과정 운영, 연 1회의 원어민 보조교사 만족도조사 실시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원어민보조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중국어수업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인 협력교사와 함께 하는 CPIK 원어민 보조교사 워크숍을 5월 초에 실시했으며, 6개 영어체험학습센터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교수능력 향상과 교류를 위한 협력 수업 워크숍을 지난 21일 한국인 협력 교사의 참여와 함께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후로도 상·하반기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워크숍 및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한 워크숍 등이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원어민 보조교사 및 외국어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계약 채용신체검사를 마약, 에이즈검사 항목이 제외된 일반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고, 재계약 2차 평가 방식을 심층면접강화 방식으로 바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워크숍, 협의 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SNS활용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앞으로 전북의 외국어교육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기초학력 향상 맞춤형 학생 지원

전주교육지원청, 이야기 나눔터 운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24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사업'을 주제로 기초학력 이야기 나눔터를 실시했다. 이날 기초학력 이야기 나눔터는 전주 관내 중학교 기초학력 업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사례 발표에 이어 5 분임으로 나누어 학교 간 만남과 이야기 나눔을 통한 상호성장의 시간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의 시간으로 운영됐다. 전주 관내 중학교 중 특히 맞춤형

학습 지원학교 10교와 포래학습 나눔학교 16교 업무담당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서·행동장애 및 기초학력 지원,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위한 학교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습지원 학생과 포래학습 도우미 포래학습 활동으로 상호성장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 간 운영계획과 진행상황을 주고 받았고 당면현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